

비인간을 향한 존재적 이행과 의인법(anthropomorphism)

정주아*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해야 한다는 생태론적 명제를 염두에 두고 최근 한국의 문학에 등장하는 탈-인간화의 기법, 즉 의인법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인간에게 인간이 아닌 존재의 몸과 감각을 주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문학적 상상력은, 인간이 인간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의인법은 인간의 이성이 동물의 몸에 그대로 이식되는 방식으로, 동물의 몸을 한 채로 인간의 사고 방식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동물들이 인간의 행동과 습성을 따라하는 데에서, 인간이 인간의 속성을 거리를 둔 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생태론적인 문맥에서 등장하는 ‘인간-동물’, ‘인간-식물’의 존재들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변이태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는 자의식이나 이성을 완전히 버리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이행해가는 중간 존재자들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김엄지와 한강의 소설을 읽으면서, 생태론적 시야의 확장과 더불어 의인법이 인간의 비인적 존재로의 이행에 있어 변이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생태주의 시대의 의인법이란, 언어라는 인간적 도구로 사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탈인간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달할 수 있는 사유의 최대치이자 한계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의인법, 생태주의, 김엄지, 한강,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1. ‘생태화하다 ecologize’와 이종(異種) 재현의 수행성

인간과 동식물이 혹은 인간과 자연 사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란 가능한가? 인간과 여타의 생명체가 언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이에게는 그저 농담처럼 들릴 법한 질문이다. 그러나 최근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거의 모든 학술 분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러한 관심의 기원은 이른바 ‘인류세(Anthropocene)’라 불리는 지구 환경의 불가역적 변화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다. 근대 산업문명이 좇아 온 진보와 성장이라는 불멸의 가치가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회의가 기후 위기나 생태계 파괴 앞에서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다. 인간이 아닌 나머지 존재들을 일컬어 비인간이라 일컫는다면, 이러한 학술적 관심은 그간 비인간을 소외시켜 온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포한다. 즉,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다만 지구생태계의 특정한 종(species)에 불과함에도 마치 지구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이 자연환경과 생명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의 오만불손함이 이미 일정한 선을 넘었다는 자각을 함의한다.

이에 자연을 보존 혹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태도까지를 포괄하여 인간(human)이라는 개념의 허구성과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려는 작업이 수행되는 중이다. 그간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을 구성해 온 근대적 개인과 주체성이라는 테제를 파기하고 ‘물질적 전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유물론의 입장이 그 예이다. 가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주장하는 브루노 라투르는 주체라는 말 대신에 ‘행위자(actor)’라는 용어를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인은 “자신이 3+1 차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¹⁾ 근대인에 대한 라투르의 이같은 정의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차원의 지상에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데아를 기웃거리는 플라톤적 인간이 원형으로 놓여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근대 형이상학 전통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시선이 담겨 있다. 이에 그는 “근대인은 애초에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고로 인간 자신이 놓여 있는 온갖 ‘물질세계’를 정확히 보고 탈관념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에게는 마르크스주의가 대변해 온 유물론조차도 주체와 객체의 관념적 이분법의 산물이며, 특히 객체를 정당한 존재자로 간주하는 대신에 ‘물질’, 정확히 말하자면 ‘물질에 대한 사유’로 환원해버리는 관념론에 불과하다. 이렇듯 사라진 객체의 자리에 정당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그의 방법론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주체나 객체는 없으며, 그것은 다만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라는 본래의 한 쌍인 만큼 그들은 “두 번 센 동일한 개체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 이러한 주체 개념의 말소란, 라투르에 따르면 ‘근대화하다 modernize’라는 동사 대신에 ‘생태화하다 ecologize’라는 동사에서 궁극적 대안을 찾는다고 할 때 필수적인 작업이 된다.³⁾

이 글은 라투르를 비롯하여 최근 생태비평적인 입장을 따라 읽으면서, 문학 연구자로서 품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누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브루노 라투르, 황장진 옮김, 『존재양식의 탐구』, 사월의책, 2023, 161쪽.
- 2) 위의 책, 146쪽.
- 3) 위의 책, 154쪽.

군가' 집필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고, 이 '누군가'의 의도와 감정이 담긴 언어가 취사선택되어 통사를 이루지 않으면 그 의미도 당초에 생성되지 않는다. 요컨대 텍스트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집필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배후의 대문자 'I'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대문자 'I'를 무엇이든 부를 것인가. 그것을 물론 반드시 주체라는 이름으로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투르의 주장대로 행위자라 부를 수도 있고, 하먼의 주장처럼 객체라 부를 수도 있다. 다만 이렇듯 모든 'I'들을 행위자(혹은 객체) 중심의 '평평한' 물질 세계로 환원했을 때, 그로부터 열리는 세계의 시야는 과연 누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 해석보다는 당초에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이 맞을까. 이에 '근대화하다'가 아닌 '생태화하다'가 지구공동체의 궁극적 대안이라는 라투르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문학 연구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주체' 혹은 대문자 'I'라는 개념을 포기한 채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해석이란 어떤 방식일지 상상되지 않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곤경은 주체라는 개념에 미련을 보이는 한 '인간중심주의'를 고집하는 것이라는, 그리하여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고집하고 인간의 우월성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정치적 올바름의 논리로 이어지기에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주체라는 개념을 유지한다는 것이 반드시 주체의 실재성을 주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체류의 정신분석론이든 데리다류의 해체론이든 실상 그것은 주체가 왜 허상인가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요컨대 주체에 대한 논의는, 주체라는 견고한 감옥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감옥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반성적 작용의 매개로서 존재해왔다는 의미이다. 이런 반성적 논의 속에서의 주체는 단일하지도 심지어 인식 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이는 라투르가 말했듯 지상에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방랑하는 근대인의 형이상학일 뿐이라 비판 받기 쉽겠지만, 것처럼 폐기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주체라는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자기 및

4) 이러한 질문은 라투르를 비롯한 신유물론의 입장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성적으로 소유하는 핵심에 언어적 조건이 있으며 이를 넘어서 객체 중심으로 사유하자고 주장하는 그레이엄 하먼 같은 '객체지향존재론' 혹은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의 입장에도 동일하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다. 가령 하먼에게 그간 객체는 한편으로는 '뭔가 더 깊은 것의 파생물'이어야 하기에 그 자체로는 '피상적인 가짜이며 비실재'라고 외면당하고 (undermining, '아래로의 환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안에는 무언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는 '불필요한 허구여서 비실재'라고 외면당하는(overcoming, '위로의 환원') 이중적인 환원 논리에 의해 소외되어 왔다. 그에게 객체는 언제나 앞서서 존재하며 자율적인 실체로서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 무엇이다. 말하자면 하먼은 객체들의 우선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체라는 개념과 그 주체의 세계를 떠받치는 언어적 관념을 부정하려는 셈이다. (그레이엄 하먼, 김효진 옮김, 『비유물론』, 갈무리, 2020.)

타자의 인식 그리고 반성의 능력은 사실상 라투르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체 개념에 회의를 느끼고 그 폐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간 주체론이 스스로의 성채를 허물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체 개념의 유지 혹은 폐지 자체에 있지 않다. 그 대문자 'I'를 주체라 부르든 행위자라 부르든, 이 'I'의 수행성이 인간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우리가 그간 문학 텍스트에서 술하게 보아온 의인법을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재론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속성을 비인간 존재에게 덧씌운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의 결정체라 할 만한 외양을 띠는 것은 여러 수사적 장치 중 하필 의인법을 선택한 이유가 된다. 어떤 종류의 비인간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든 그 비인간 존재는 배후에 놓인 주체인 'I'의 말과 행동을 대체하기 위해 선택된 것처럼 보인다.⁵⁾ 나아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비인간 존재에게 덧씌운다는 의인법의 원리를 감안한다면, 그 적용 분야는 비단 문학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이야기 담화의 전개는 인간적 주체에 의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에 본질적으로 의인적 성격을 지닌다고 본 그레마스의 의견에 따르면⁶⁾ 그것은 이야기의 조직 원리가 되기도 하고, 신화와 성경에 등장하는 인격화된 신들의 말과 행동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신학의 구성원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에 의인법은 인간의 자질을 자연에 투사하여 합일을 구하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보편화되었으며,⁷⁾ 이렇듯 자연과 인간의 동화를 추구했던 의인적 세계관은 당대의 시대정신 자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수사법으로서의 의인법은 서사론, 신학, 철학 등 언어 기반의 모든 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와 위상에 대한 본질적 상태를 담아낸다.

5) 최근의 생태주의 비평 논의들, 특히 동물권과 관련한 주장 중에는 '비인간 동물'을 대상으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덧씌운다는 "중차별주의적 의인화"라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송다금(2024), 「포스트휴먼시대,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위한 타자윤리의 가능성」, 『공공사회연구』14(1), 188쪽.) 즉, '동물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물의 본래적 특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실제 동물을 '소외'시킨 것이고, 반대로 관점을 바꾸어 보면 동물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헤게모니를 권 인간을 은폐한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같은 논문, 188쪽.). 돈을 홍보하는 마스코트가 된 돼지라든가, 훌륭한 케찹이 되겠다고 노래하는 토마토 등을 등장시키는 광고는 실제 동물의 소외와 더불어 이를 기획하는 인간의 모습은 숨기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6) 김태환(2017), 「의인법과 서사적 구조」, 『구비문학연구』 45, 186쪽.

7) Alexander regier(2006), Figuring it out: the origin of language and anthropomorphism,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42(4), p.412. 저자는 자연을 '그녀'로 지칭하면서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상태를 지향하는 태도를 사례로 든다(p.415). 이렇듯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전제한 의식 구조가 만들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비판받는 인간중심주의의 기원이 낭만주의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인간의 비인간의 속성이 뒤섞인 자리에서 탄생하는 ‘인간-비인간’(동식물 혹은 기타 사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허구적 중간자의 형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사티로스(satyrs)처럼, 인간성과 동물성(혹은 식물성, 사물성)이 혼합된 지점에서 탄생한 상상의 산물이다. 이러한 중간자를 상정하는 것은, 의인법을 일방적인 감정의 이입이라는 도식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된다. 이는 낭만주의 시학이 그러하듯이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사물을 가리키는 토머스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의 관점과 유사하되,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제3의 존재를 보다 명료하게 바라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로써 관념상에 머물 뿐 실존하지 않는 이종(異種)의 중간자적 존재들이 열어놓는 타자성들을 살펴 보려는 것이다.

이 중간자적 존재는 결과적으로 인간보다 완전한 존재일 수도 혹은 인간보다 불완전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평가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원리와 이성의 합리주의를 신봉한다고 상정된(!) 인류가 여전히 인간과 유사성을 분유한 이종(異種)을 상상한다는 사실이며, 그 이종들의 세계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질문해야 할 것이다. 문학적 허구임을 의식하면서도, 즉 그 형상이 실재한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인간화된 비인간’ 혹은 ‘비인간화된 인간’의 형태로 중간자적 존재를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컨대 이러한 존재적 자리바꿈 혹은 존재적 이행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의인법의 세계에서 주체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재론하고, 배후의 ‘I’가 스스로의 무능을 확인하면서 타자를 발견하되 그 타자를 자신의 일부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지속적으로 봉착한다는 점을 살핀다. 이러한 내부 타자의 발견과 자아화가, 인간중심주의의 부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생태화하다ecologize’의 현실적인 수행 방식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인간중심주의의 부정 형태로서의 의인법

인간-동물의 형상을 등장시킨 서사는 일반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환상을 파괴하고 인간을 계몽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가령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 돼지(紅の豚, Crimson Pig)」(1992)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의인화를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죽음에 환멸을 느낀 이탈리아 공군 대위 ‘마르

코(Marco)'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모습을 거부하고 돼지 '포르코(Porco)'가 되어 살아간다. 인간을 의미하는 'M'을 돼지를 의미하는 'P'로 바꾸어 버린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포르코는 본래 인간이었으나 돼지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 파시스트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조국 이탈리아를 외면한 채, 그는 무국적자로서 공적(空賊, air pirate)과 싸우고 그 현상금을 받아 생활한다. 무인도에 살며 붉은 비행정을 조종하며 나타나 악당과 싸우는 돼지를 일컬어 인간들은 '붉은 돼지(crimson pig)'라 부른다.

스토리상으로는 인간 마르코가 어떻게 돼지 포르코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의인법을 동원한 판타지에서 종종 그러하듯, 등장인물 중 어느 누구도 포르코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거나 이상한 외양을 지녔다면 놀라지 않는다. 다만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포르코 주변의 인간들이 '당신은 왜 돼지가 되기로 결심했는가'라는, 변신의 이유를 궁금해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답들이 곧 작품이 내놓고자 하는 계몽적 메시지로 이어진다. 물론 포르코는 자신의 결심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은 포르코의 대사를 통해 작품 내에 흩어져 있다.

“애국은 인간들끼리나 많이 하라.”(I'll let the "humans" do that).

“돼지에게는 나라도 법도 없다.”("Country" and "law" don't mean anything to a pig.)

위의 대사는 무엇보다도 「붉은 돼지」가, 인간-동물의 형상을 인간의 단점을 비취주는 거울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애니메이션은 파시스트 집단의 이념적 맹목성을 비판하기 위해, 아나키스트이자 낭만주의자인 돼지를 등장시킨다. 이때 돼지는 이익추구에 전념하는 세속성의 기호로서, 국가적 명예와 권위 등 숭고함으로 한껏 치장된 인간 사회의 정치적 허위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인간들 속에 어울려 살아가는 돼지 포르코는, 대의명분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이익에만 전념한다는 세속성을 극대화한 기호이면서도, 당대의 '돼지보다 못한 인간'의 행태를 부각시키는 장치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의 대사는 인간으로 살면서 자신이 놓인 국가, 나라, 법 등을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돼지 포르코의 동물성은 '무국적자' '파일럿'이라는 설정과 더불어 인간성을 벗어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어 낸 인간-동물의 형상, 즉 '동물화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속성과 동물의 속성이 서로 경합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절대 관념에 충성한 나머지 괴물이 된 인간성을 다만 일상적 생존과 먹이 사냥에 충실한 동물성과 마주 세워 놓았다. 엄밀히 본다면 둘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바람직하다 할 수 없지만, 다만 포르코라는 인간-동물의 중간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인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고자 했다.

얼핏 보아 이러한 포르코의 선택은, 인간은 동물성을 제압하는 한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는 통념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아감벤(Agamben)은 인간이란 인간임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한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동물성을 지배하고 결국은 파괴할 수 있기에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The Open: Man and Animal*, 2003)⁸⁾ 그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학명 자체가, 언어나 인지력 등 동물과 구분되는 차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조건을 만들면서 종적 차별을 형성해가는 기계, 즉 “인간학 기계(anthropological machine)”로 기능한다. 종적 구분이 곧 종적 차별을 형성해 나간다는 그의 언어학적 고찰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종적 차별과 그에 따른 진화론적 편견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달리 본다면, 인간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온 ‘인간(human)’의 범주라든가 ‘인간으로서의 자부심(dignity)’이란 관념 등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전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붉은 돼지』에 등장하는 인간-동물인 포르코는 인간이 만든 ‘인간학 기계’를 스스로 벗어난 자리에 존재하는 이종(異種)이다.

한편, 이와 달리 ‘인간화된 동물’의 형상을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려 했던 시도도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Animal Farm)』(1945)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석되었지만, ‘인간학 기계’에 관한 아감벤의 시각을 적용한다면 인간이 종적 차이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에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가를 통찰한 텍스트로도 읽을 수도 있다. 인간이 동물로 변신하는 사례에 속하는 『붉은 돼지』와는 달리, 『동물농장』은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다룬다. 혁명에 의해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주의’에 입각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던 동물들은, 지도자로 군림한 돼지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금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신세가 된다. 이 소설은, 나폴레옹과 그를 추종하는 돼지의 무리들이 동물들의 혁명정신을 표상하는 ‘동물주의 일곱 계명’을 하나씩 파괴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일곱 계명

8) Giorgio Agamben(2002), *The Open: Man and Animal*, trans. by. Kevin Attell, Stanford University Press, p.12. (He can be human only to the degree that he transcends and transforms the anthropophorous animal which support him, and only because, through the action of negation, he capable of mastering and, eventually, destroying his own animality.)

중 첫 번째가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나 적이다’였던 만큼, 이 절대적 규칙이 파괴되는 부분이 곧 소설의 절정부에 해당된다.

돼지 한 마리가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그렇다. 바로 스킨러였다. 커다란 몸집을 두 발로 지탱하기 어려운 듯 약간 뒤통뒤통거렸지만 썩 균형을 잘 잡아 마당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걷고 있었다. 잠시 후 농장 본채에서 돼지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 위풍당당하게 꼴꼴이 서서 좌우로 교만스러운 시선을 던지며 나폴레옹이 나타났다. 그를 호위하는 개들과 함께였다.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⁹⁾

It was a pig walking on his hind legs.

Yes, it was Squealer. A little awkwardly, as though not quite used to supporting his considerable bulk in that position, but with perfect balance, he was strolling across the yard. And a moment later, out from the door of the farmhouse came a long file of pig, all walking on their hind legs(...) and out came Napoleon himself, majestically upright, casting haughty glances from side to side, and with his dog gambolling round him.

He carried a whip in his trotter.¹⁰⁾

소설의 결말에서 작가는 돼지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누가 돼지이고 누가 사람인지 구별하기란 이미 불가능했다(already it was impossible to say which was which)”고 적었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돼지도 사람도 아닌 그 결합으로 나타난 ‘인간-동물의 중간 존재’ 그 자체이다. 이 중간자적 존재는 개별 동물 혹은 인간이라는 어느 한 편에 종적 동일성 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변이’의 충격을 재현한다. 이 소설이 담아내는 ‘변이’란 혁명을 불러왔던 열정의 변질, 점차 커져가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작가는 ‘동물의 인간화’를 통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내면의 변화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로부터 결과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돼지들이 인간 사회에서 모방하려 했던 것들, 즉 언어와 문자의 습득, 직업 보행, 차별적인 의식주(衣食住) 문화 등에 배태된 정치적인 권력이다. 이른바 ‘인간

9) 조지 오웰(2010), 『동물농장/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 문학동네, 116쪽.

10) George Orwell, *Animal Farm*, ebooks@Adeleide(<https://ebooks.adelaide.edu.au>), The university of Adelaide Library.

적인 것'의 목록이 어떻게 배타적인 계급의 분화를 만들어 왔는가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문명의 진보와 문화적 계몽을 향한 인간의 프로젝트는 인간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준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중심주의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동물농장』은 비단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족속이냐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알레고리에 그치지 않는다. '동물-인간'의 형상은 인간의 문명(인간다움)이란 인간 자신을 특권적 존재로 만드는 인간중심주의를 던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3. 육체라는 잉여(remnant)와 분리불가능한 타자

그러나 『붉은 돼지』나 『동물농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논점은 비단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나 인간중심주의의 메커니즘이 전부가 아니다. 왜 하필 '인간-동물'의 형상이 등장하느냐는 최초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다시 생각해본다면, 인간과 동물의 종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동안 상대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육체라는 공통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우들과 함께 죽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의식 때문에 인간에서 돼지로 바뀐 '포르코'나, 동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혁명을 일으켰으나 점차 타락하여 돼지에서 인간으로 변해가는 '나폴레옹'은 공통적으로 몸(flesh)의 물질성을 매개로 했기에 변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얼마나 큰 야심을 품든 얼마나 원대한 이상을 꿈꾸든, 기계적으로 먹고 배설하는 육체의 영역에 관한 한 '인간으로서의 금지'는 들어설 여지가 없다. 육체적 생존 앞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누구든 이기주의자가 되고 만다는 냉정한 통찰은 '인간-동물'의 형상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를 배경으로 한 『붉은 돼지』나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주의를 풍자한 『동물농장』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지는 상황 속에 태어난 알레고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낮은 취업률과 열악한 노동 조건, 경제 양극화에 시달리는 한국에서 발표된 소설들은 '인간-동물'의 형상과 '육체'라는 매개를 통해 인간 사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김검지의 「돼지우리」는 돼지고기 구이를 파는 '돼지우리'라는 식당에 취직한 여성과 그 여성을 부러워하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 여성이 특이한 조건으로 식당에 취직을 했다. 식당 주인이 여성을 고용하면서 내세운 조건은 한 가지, '돼지고기 구이를 지치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상한 채용의 비밀은 나중에 밝혀진다. 이 식당의 사장은 '돼지인간'에 대한 감식안이 있고, 오랫동안

그들을 한 데 모아 사육하는 일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월급도 받으면서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은 여성을 부러워하면서, 그녀의 친구는 자신에게도 그런 행운이 따를 수 있겠는지 사장에게 묻는다. 그러나 사장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고용한 '돼지인간'과는 다른 종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장님, 그럼 저는 어떤가요? 저는 어디가 돼지인가요? 흠뻑 취해, 축 늘어진 빨래처럼 앉아 있는 사장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흡사 접신된 점쟁이 같았고, 때문에 어디 점집에 온 기분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은 어디 볼까, 하며 운을 떠었다. 볼따구도 통통하고, 좋아. 사장은 내 볼을 꼬집었다. 다리통도 튼실하구먼, 좋아! ……근데 친구는…돼지가 아니야. 사장은 먼지를 털 듯 내 어깨를 두드렸다. 뜻밖이었다. 백 퍼센트 돼지라는 전제 하에, 나의 어느 부위가 돼지로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람도 아니야. 이진 뭐……11)

돼지고기를 먹는 '돼지인간'이라는 동족 학살 및 식육의 모티프, 종적 차이를 감지해내는 심판관으로서의 식당 사장 등, 이 소설이 그려내는 식육(食肉) 잔치의 현장은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 소설은 끝없는 시장 경쟁 시스템 속에서 동물적 욕구의 충족마저도 힘들어진 한국의 세태 속에서 태어났다. '돼지인간'은 동물적 욕구의 충족을 삶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존재들이다. '돼지인간'이 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사회-생태계, 엄청난 식육을 인정 받아 사회에 합류한 '돼지인간'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플롯은 돼지인간의 속성을 설명하거나(『붉은 돼지』), 돼지인간의 전이를 비판하는 데에(『동물농장』)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소설의 설정은 독특하다. 작가는 '돼지인간'의 세계에 간절히 합류하기를 원하는 인간을 등장시킨다. 그는 심판관(사장)으로부터 '너는 돼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무엇'이라는 판정을 듣고 '돼지우리'의 외부에 낙오된다.

이 소설은 인간중심주의를 꾸짖거나 자연 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탈-인간중심주의'를 구현한다. 먹고 배설하는 육체의 동물성을 혐오스럽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탈-인간학 기계'를 구현한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에게는 인간의 긍지라든가 이성은 아예 의식조차 되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동물성이 우위를 점유한 상태이며 자신의 동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인간들만이 존재한다. 이 소설의 화자는 돼지인간

11) 김엄지(2010), 「돼지우리」, 『문학과사회』, 여름호, 548-549쪽.

이 되어 ‘돼지우리(pigsty)’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아닌 상태가 되어 우리 밖을 서성인다. 말 그대로 그는 ‘인간-돼지’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돼지가 못 되었다고 초조해하는 이 중간 생명체는, 비이성적인 인간이 되느냐 차라리 이성적인 동물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붉은 돼지』의 ‘인간-돼지’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때 ‘인간-동물’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과 이성의 진보를 향한 믿음이 사라진 세계, 오로지 육체적 본능의 동물성만이 인간을 조종하는 지상원칙이 되어버린 세계의 알레고리가 된다. 동물성이라는 주인, 즉 통제가 어렵다는 면에서는 사냥지만 충실히 따르면 반드시 쾌락을 돌려주는 착한 주인을 기꺼이 섬기기로 작정한 인간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세계에서 의인법은 더 이상 수사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경우 ‘인간-동물’의 알레고리는 부정적 의미에서 ‘탈-인간중심주의’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육체’는 과학과 계몽주의가 지배하는 인간의 문명사에서 언제나 이성의 통제를 거부하는 잉여(remnant)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성의 통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되, 먹고 배설하는 동물적 육체를 지닌 중간적 존재들과 확연히 다른 변이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한강의 작품이 보여주는 ‘인간-식물’의 중간 존재들이다. 한강이 그려내는 중간 존재들은 동물적 본능이 아니라 내적인 욕망에 장악되어 이성의 통제를 거부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잉여가 육체를 빌어 재현된 형상을 띤다. 특히 한강은 앞서 살펴본 김엄지의 인간-돼지가 시사하는 인간 육체의 동물성에 대해 정 반대되는 지점에서 식물성을 내세우고, 때로는 이 식물성을 통해 동물성에 맞서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간의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는 잉여로서의 육체와 그 육체를 점유한 동물성이란, 생존경쟁을 앞세울 때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 남보다 빨리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욕과 이기심이 그 전면에 나서 있고, 그것이 탐식이라는 행위로 표현되어 온 것이다. 이때 동물성에 상대되는 식물성이란, 타인을 제압하고 소유권을 빼앗는 식으로 ‘탐식’하여 자기 영역을 지키고 넓혀가는 동물성의 생존방식과는 결을 달리 한다.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는 점차 식물이 되어가는 아내의 변이를 남편의 시점에서 다룬 소설이다. 아내의 몸이 나무로 변한 것은 더이상 도시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자신이 놓인 곳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움직일 수 없다’는 아내의 상황은 비단 도시의 아파트 생활을 가리키는 비유가 아니며,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로서 정해진 역할에 자신을 묶어 두어야만 했던

여성의 수동적인 삶을 가리킨다. 이에 그녀의 육체는 먹고 배설하는 동물적인 본능과 결별하고, 다만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 수 있는”¹²⁾ 상태가 된다. 간절한 바람의 결과로 ‘인간-식물’이 된 아내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아내는 베란다의 쇠창살을 향하여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만세 부르듯 치켜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진초록색이었다. 푸르스름하던 얼굴은 상록 활엽수의 잎처럼 반들반들했다. 시래기 같던 머리카락에는 싱그러운 들풀 줄기의 윤기가 흘렀다.

초록빛 얼굴 속에서 두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뒷걸음질치는 나를 향하여 아내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다는 듯이 다리끼를 움짚 경련했을 뿐이었다.¹³⁾

생존을 위한 섭생 앞에서는 이기심을 내려 놓지 못하는 동물-인간과 달리, 한강이 그려내는 식물-인간은 먹을 것을 거부하는 거식 증상을 보여준다. 몸이 섭생을 거부하면서 점차 말라가는 모습은 탐식을 통해 몸을 키워가는 동물의 특성과는 상반된 것이다. 특정 자원을 독점하기보다 모든 생명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바람, 햇빛, 물’ 등의 자원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물론 한강 소설에 등장하는 ‘인간-식물’ 중간 존재는 여성이라는 젠더적인 관점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회적인 관습상 억압 받아온 여성의 다층적인 감정이 육체를 점령하면서 나타난 형상이다. 참고 억눌러 왔던 외로움이나 분노는 물론 인정 욕구와 성적 욕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이 육화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답답한 현재적 상태를 벗어날 출구를 바랐던 아내가 보여주는 수동적인 저항의 최대치인 것이다.

그러나 젠더적인 관점에서 시각을 좀더 넓혀보면, 이는 경쟁적 발전을 원리로 한 생존을 추구해 온 인간의 동물적 속성에 대해 전면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작가 특유의 접근법이라 할 수도 있다.

차라리 먼 데로 가, 우리.

있사귀 가득 기운찬 빗줄기를 받아들이며 잠시나마 우쭐우쭐 되살아나는 채소들과는 달리 아내는 더욱 음울하게 시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콧물도 가래침도 새까매.

아내는 상춧잎 위로 여윈 손바닥을 내밀어 비를 받았다가 이내 베란다 밖으로 뿌렸다.

12) 한강(2018),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문학과지성사, 33쪽.

13) 위의 책, 29쪽.

더러운 비야.

아내는 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잠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¹⁴⁾

인용문은 결혼하여 가정과 직장을 꾸린 뒤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남편과 그런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아내의 첫 말다툼을 그린 장면이다. 직장 내 노동에 몰두하는 남편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아내라는 전통적인 역할론이,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사례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한강은 이 지점에서 좀 더 나아간다. 공업 발전과 더불어 오염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식물들이 빗줄기를 맞아 일시적으로 생기를 찾지만 그 빗물이 독이 되어 결국은 병이 깊어지는 원리를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근대 문명이 낳은 발전주의 사관이 비단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행성적인 파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태론적 비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법의 유의미성이 드러난다. 즉 스스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인간의 등장이란, 젠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 문명의 형성 원리라 할 수 있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이라 하겠으나, 생태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동물적 탐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몸집을 불려나가는 경쟁적 발전주의에 대한 반발이기도 한 것이다.

기존의 통념과 관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 억눌러 온 자기 욕망이 육체를 점령하고 마침내 인간 존재까지 잠식한다는 점에서, 식물은 그 나름의 강력한 점령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식물과 인간의 중간 존재인 식물-인간은 힘겹게 견뎌온 현실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러선다. 빛과 바람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세상에 요구하기보다 홀로 침묵하기를 선택한다. 세상에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서 절식(絶食)이나 침묵을 선택하는 인물들의 묘사는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서사로 이어지곤 했으나, 한강의 작품에서는 식물-인간로의 변이로 나타난다. 자기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탈속(脫俗)하며 신의 세계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인간은 동물성이 노골화된 세계에 맞서 자기 욕망을 쟁취하는 방식으로 그려진다.

4. 탈-인간중심주의적인 인간의 시선

14) 위의 책, 23쪽.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해야만 행성적 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경고는 논리로도 또한 실천적 방향으로도 옳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인간 밖을 내다보고 탈-중심을 구현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로부터 우리는-어쩌면 가장 익숙한 방식이지만-자기 존재를 스스로 거리를 두며 내려다보는 반성적 의식의 존재를 유추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문학을 언제나 이처럼 익숙한 존재에 거리를 두어 낯설게 바라보는 방식을 추구해왔다.

이 글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해야 한다는 생태론적 명제를 염두에 두고, 최근 한국의 문학에 등장하는 탈-인간화의 기법, 즉 의인법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인간에게 인간이 아닌 존재의 몸과 감각을 주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문학적 상상력은, 인간이 인간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의인법은 인간의 이성이 동물의 몸에 그대로 이식되는 방식으로, 동물의 몸을 한 채로 인간의 사고 방식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동물들이 인간의 행동과 습성을 따라하는 데에서, 인간이 인간을 거리를 두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생태론적인 문맥에서 등장하는 인간-동물, 인간-식물의 존재들은 그 성격이 다르다. 김업지의 소설에서는 인간이 자기 제어나 통제, 윤리 등 인간적인 속성을 완전히 버리고 돼지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한강의 소설에서는 소유와 탐욕을 버리고 식물로 변해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변이는 공통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이나 이성을 버렸다는 점에서, 단순히 동식물의 몸을 빌리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인법의 전통적 작법을 벗어난다. 온전히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이행해가는 세태의 진단이자 그러한 세태에 대한 반발로서 비인간을 향한 존재적 이행을 시도하고 있다. 전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가치의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는 돼지의 무차별적 식욕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경쟁과 소유 독점을 근간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비웃듯 자원의 공유와 독점의 포기 섭생의 거부 등을 존재 조건으로 갖는 식물의 고립과 인내로 나타난다. 생태론적 시야의 확장과 더불어 의인법이 인간의 비인간적 존재로의 이행에 있어 변이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이의 방식을 두고 의인법이라는 용어 이상의 어떤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임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듯, 인간이 언어의 밖에서 사유한다는 사실 또한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 인간이 언어를 통해 비인간되기를 실험하는 데에는 의인법이라는 용어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생태주의 시대의 의인법이란, 언어라는 인간적 도구로 사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탈인간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달할 수 있는 사유의 최대치이자 한계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일차자료

- 김엄지(2010), 「돼지우리」, 『문학과사회』, 여름호.
한강(2018),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문학과지성사.
한강(2012), 「왼손」, 『노랑무늬영원』, 문학과지성사.
조지 오웰, 김기혁 옮김(2010), 『동물농장/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 문학동네.
George Orwell, *Animal Farm*, ebooks@Adeleide(<https://ebooks.adelaide.edu.au>), The university of Adeleide Library.

논문 및 단행본

- 김태환(2017), 「의인법과 서사적 구조」, 『구비문학연구』 45집, 한국구비문학회, 179-212쪽.
송다금(2024), 「포스트휴먼시대,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위한 타자윤리의 가능성」, 『공공사회연구』14권 1호, 한국공공사회학회, 176-208쪽.
부뤼노 라투르, 황장진 옮김(2023), 『존재양식의 탐구』, 사월의책.

Regier, Alexander(2006), 'Figuring it out: the origin of language and anthropomorphism',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Vol.42 No.4, pp.415-430.

Agamben, Giorgio(2002), *The Open: Man and Animal*, trans. by. Kevin Attell,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Existential Transition toward Non-Human beings and Anthropomorphism

Ju-A, JOUNG

This study explores the evolving technique of anthropomorphism in recent Korean literature, framed by the ecological necessity of dismantling anthropocentrism. Historically, giving humans the sensory experiences of non-human beings was a method used to escape anthropocentric boundaries. However, traditional anthropomorphism often remained limited, as it merely superimposed human reason onto animal forms, keeping human cognitive structures intact. In contrast, the “human-animal” and “human-vegetal” figures in contemporary ecological narratives represent a significant shift. These figures function as liminal beings who relinquish human rationality to undergo a complete transition into the “Other.” Through an analysis of novels by Kim Um-ji and Han Kang, this article argues that contemporary anthropomorphism serves as a vehicle for radical variation and ecological expansion. Ultimately, this mode of anthropomorphism marks the furthest point human thought can reach in its attempt to achieve true dehumanization while still operating within the limitations of human language.

Keywords: anthropomorphism, ecology, Kim Um-ji, Han Kang, anthropocentrism, dehumanization